

“시즌 끝난 행복 누리고 싶어요”

‘피겨 퀸’ 김연아 어제 귀국

“향후 계획은 천천히 생각”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앞으로 계획에 관심이 많으신데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결정하고 싶어요. 아직 시즌을 끝낸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이탈리아에서 열린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 지난달 31일 귀국한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인지 집 생각이 제일 간절하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밴쿠버올림픽이 끝나고 잠시 서울에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8월에 한국에 온 것이 마지막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연아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생활해 지루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가족과 친구도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다”며 기뻐했다.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이탈리아에서 캐나다로 곧바로 돌아가고 이 대회에 함께 참가한 광명(16)과 김민석(17·이상 수리고)은 전날 귀국해 김연아는 훌륭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귀국 소감을 묻자 “이제 올림픽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며 훌륭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시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 세계선수권대회가 유일한 은메달이었지만 김연아는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연아는 ‘더는 오를 산이 없는데 앞



피겨 여왕 김연아가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한참동안 답을 내놓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연 김연아는 “산들을 넘은 지 얼마 안 돼 다음 산을 아직 생각 안 해봤다”며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원했던 것을 다 이뤄 그 다음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가 걱정인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시즌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이 행복을 누리고 싶다. 5월이나 6월 캐나다로 돌아갈 것이지만 진로 결정은 전천히 해도 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김연아는 “지금까지 피겨를 하느라 중학교부터 학교생활을 거의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어떤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 이젠 아쉬움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연아는 ‘더는 오를 산이 없는데 앞



‘골프지존’ 신지애가 지난달 31일(한국시각) 미국 랭조 미라지의 미션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크리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프로암대회 18번홀에서 이글 퍼팅을 실패하자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이승훈 MVP

코카콜라 체육대상

이승훈(22·한국체대) 등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영웅들’이 제15회 코카콜라 체육상을 훙슬았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인만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딴 이승훈은 지난달 31일 소공동 서울웨인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최우수 선수상(MVP)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역시 밴쿠버 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를 나란히 석권한 모태범(21), 이상화(21·이상 한국체대)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남부대 공기권총 단체전 3위

남부대가 제22회 연맹회장기 전국대학생 사격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부대는 지난달 31일 전북임실사격장에 서 열린 남대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정주영·이상진·송수주·박민근이 출전, 1756점을 합작해 동국대(1775점)·경남대(1763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여대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는 남부대가 6위, 조선대는 8위에 그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남아공 월드컵 안방서 3D로 본다

미 디렉TV 3D중계 공식화…SBS ‘국내도 가능’

축구팬들의 꿈의 제전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3D 영상으로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계권을 보유한 SBS, 3D 채널 서비스에 나선 스카이아이프 등과 3D 영상 제공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으로 축구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에 맞춰 3D 스포츠 채널인 ESPN 3D를 선보인다고 밝혔을 때 따라 남아공 월드컵이 3D로 중계되는 최초의 국제 스포츠 제전이 되리란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SBS 관계자는 “3D로 영상을 구현하는데 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국내 모든 플랫폼들과 중계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드컵 미리보기 120회차에서 3D 영상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디렉TV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 월